

외국인 120조 순매도에 개미들 불안... 코스피 변동성 확대

삼전·닉스, 반도체주 103조 팔아
코스피 하루 평균 변동률 3.9%
전문가들 “이탈 아닌 차익 실현”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시스

서울 마포에서 자영업자를 하는 60대 김모씨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식을 갖고 있다. 최근 평가이익이 13억원 가량으로 올랐다. 김씨는 주식을 판 돈과 대출을 더해 꼬마 건물을 살 계획이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상가 매물도 둘러봤다. 김씨는 “주식이 언제까지 오르기만 할 수 없을 것 같아 적절한 시기에 정리할 생각”이라며 “무엇보다 외국인이 받을 빼고 있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학 개미(국내 주식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대급 반도체 주식 매도세에 발목 잡혔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이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이란 해석이 많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러다 개미들만 고점에 물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외국인 팔고 또 판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조8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20거래일 동안 69조원 넘게 팔아치웠다. 올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120조원을 순매도했는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61조원)와 SK하이닉스(42조원)가 103조원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고점에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인의 반도체 팔자에 코스피 변동성도 커졌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코스피의 일간 평균 변동률은 3.9%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일 평균 변동률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지난 3월의 일 평균 변동률 3.7%도 웃도는 수치다. 특히 코스피가 급락한 지난 5일 변동률은 4.0%까지 높아졌다.

코스피의 일 평균 변동률이 1990년 이후 4.0%를 상회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다. 지난 1997년 11월~1998년 2월 외환 위기 당시 일 평균 변동률이 5.7%였고, 이어 2000년 6~11월 닷컴버블 붕괴 때 4.6%, 2008년 10~12월 금융 위기 7.4%, 2000년 3~4월 코로나 팬데믹 때 4.9% 등이다. 시장에서는 그 배경 중 하나로 우선 지

수 내 비중이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쏠림 현상이 꼽힌다. 두 종목의 합산 비중은 50%를 훌쩍 넘어선 상태다. 외국인이 ‘반도체 팔자’에 나서자 개인들이 반도체 주가 방어에 나서면서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외국인 매도 이유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리밸런싱(종목과 비율 조정)을 꼽는다. 권순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오른 만큼, 과거보다 적은 물량만 매도해도 절대 금액 기준 순매도 규모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순매도는 한국 시장 이탈이라기보다는 차익실현과 포트폴리오 재조정 성격에 가깝다”고 했다.

외국인 지분율은 유지되고 있어서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한국 증시를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

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시가총액 지분율은 지난 5일 40.05%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29일 40.01%를 찍은 후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단기 차익실현 과잉일 뿐, 한국 증시에 대한 구조적 비중 축소로 보기는 이르다는 의미다.

◆당분간 변동성 불가피

서울 중구에 사는 박수정씨(36)는 최근에 만든 마이너스통장에서 3000만원을 증권사 계좌로 보낸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샀다. 회사 동기 20여 명이 있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 박씨는 “재테크를 안 하고 있으니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져 마이너스통장 자금으로 주식을 샀다”며 “외국인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받을 때면 손실이 날까 두려워 사고 팔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팔자’에 개미들의 불안도 덩달아 커졌다. 개인이 증권사에서 빌린 돈으로, ‘빚투(빚내서 투자)’ 수준을 보여주는 신용거래잔액 잔액은 지난 4일 기준 37조 7376억원으로 사상 최고(38조 2277억원) 수준이다. 빚투 수요 폭증 속에 지난달 전체 금융권 신용대출 잔액은 전월 말보다 2조 1000억원 증가한 104조 9000억원으로 6개월 만에 처음 증가 전환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4일 기준 3거래일 만에 전월 대비 9894억원 늘었다.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불가피하지만, 대세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증시를 이끄는 두기업의 이익 성장세가 가파르다.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15곳의 컨센서스(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5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2분기 추정 영업이익은 88조 3029억원이다. 전 분기 영업이익은 57조 2328억원이다. SK하이닉스도 64조 3195억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직전 분기 영업이익은 37조 6103억원이었다.

IB들의 한국 증시 낙관론도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지난 3일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1만 2000선으로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시장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한국 반도체 주가는 선행 PER 5배 수준으로, 시장은 이 수익이 얼마나 오래 갈지 회의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사이클이 과거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과 모건스탠리, 일본 노무라증권도 1만 선을 전망한다.

그러나 들여다 봐야 할 변수도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된 영향으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증시 부양책 등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브로드컴이 다음 분기 실적 가이드스(전망)를 내면서 AI(인공지능) 반도체 매출 전망을 시장 예상치(172억 달러)보다 낮은 160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불거진 ‘AI 거품’ 우려도 시장 변수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19년간 글로벌 인재 7944명 키웠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활동보고서
해외교환 장학생 만족도 96.7%
단순 지원 넘어 장학생 간 연결 도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지난 19년간 이어온 해외교환 장학사업의 성과와 미래세대 지원 활동을 담은 ‘2026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단순한 사업 실적을 넘어 청년 한 사람의 성장 가능성이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재단의 철학과 그동안의 발자취를 담았다.

7일 미래에셋박현주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2007년 제1기 해외교환 장학생 선발 이후 올해까지 50개국에 총 7944명의 대학생을 파견했다. 미국·독일·중국·프랑스·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학업과 문화 교류를 경험한 장학생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글로벌 역량을 쌓으며 성장해 왔다. 특히 최근 3년간 파견 인원은 2024년 479명, 2025년 479명, 2026년 507명으로 증가하며 사업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에 담긴 만족도 조사 결과도 눈길을 끈다. 해외교환 장학생의 96.7%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95.4%는 외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87.7%는 전공 심화와 진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장학금 사용처 역시 생활비(61.8%)와 기숙사비(23.2%)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해외 체류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넘어 네트워크로... ‘MEET-UP 프로젝트’ 확장

재단은 최근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장학생 간 연결과 네트워크 형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23년 시작된 ‘밋업(MEET-UP) 프로젝트’는 해외교환 장학생 선배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뇌과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 약 540명의 장학생이 참여했다. 보고서에는 “인

공지능 시대, 뇌과학으로 미래의 기회를 성찰하다”,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질문법” 등 실제 행사 주제와 현장 모습도 담겼다.

장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지원도 단순금전 지원을 넘어선다.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장학증서를 제공하고, 국가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굿즈도 함께 전달해 해외 현지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51만명 지원한 인재육성 플랫폼... “가능성에 ON, 온기를 켜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해외교환 장학사업을 넘어선 미래세대 지원의 확장이다.

재단은 지난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인 ‘청년 씨드온 프로젝트’의 대상을 가족 돌봄청년까지 확대했다.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금융교육과 자산 형성 프로그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이미지.

램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아름다운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원 체계도 강화했다.

2000년 설립 이후 재단과 미래에셋 계열사가 추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누적 지원 인원은 51만 4307명에 달한다. 해외교환 장학생 7944명, 국내 장학생 4102명, 글로벌 장학생 5368명, 금융·경제교육 38만 5187명, 글로벌 리더 대장정 1만 4084

명 등 지원 분야도 다양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만점을 획득했고,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코리아 사회공헌대상도 수상했다. 지난해 재단의 총수입은 약 58억 3600만원, 총지출은 56억 2200만원이었다.

/허정윤 기자

올 시총 순위 대격변... 삼성전기 29계단 급등

이차전지·조선주는 뒷걸음질

시가총액은 투자자가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읽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다. 개별 기업의 부침은 물론, 시장이 지금 어떤 산업의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

하고 있는지, 과거와 비교해 산업 트렌드는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올해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삼성그룹주의 순위가 일제히 오른 반면, 이차전지·조선주는 줄줄이 내렸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10개 종목(우선주 제외) 가운데 7개 종목이 지난해 말 대비 순위가 바뀌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와 2위인 SK하이닉스, 10위인 KB금융만이 순위를 유지했다.

현재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삼성전기로 지난해 말 34위에서 이달 5위로 29계단 뛰었다.

이 기간 시총은 19조 470억원에서 131조 2370억원으로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인공지능용 MLCC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린 영향이다. 올해 들어 주가 상승률은 589%에 달한다.

삼성생명도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다. 지난해 말 순위는 18위에 불과했지만 이달 7위로 11계단 올라 10위권 내 진입에 성공했다. 삼성전자가 주가 급등에 따른 지분가

치 재평가 기대가 번지면서 주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삼성물산은 13위에서 8위로 5계단 올랐다. 삼성생명도 삼성물산 주가는 올해 들어 각각 162%, 92% 급증했다.

SK하이닉스 최대주주인 SK스퀘어 순위도 7위에서 3위로 올랐는데, SK하이닉스 주가 급등에 따른 지분가치 상승 기대로 주가가 오른 점이 영향을 줬다.

/신하은 기자 godhe@